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종전 선언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하거나 합의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또다시 전쟁을 걸고 들어 오면 이 선언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0년 전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 주변국들이 보는 휴전 상태, 정전 체제를 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1990년대 들어 흡수 통일의 불완전 등으로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전협정 이행의 중요한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회나 중립감각독위원회 등을 차례로 무력화시키고,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새로운 평화 보장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 군사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자

종전 선언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따라서 자신들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가?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이나 정전협정을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과 냉전 및 그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열세에 처한 남만을 돕기 위해 참전했다. 미국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한반도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고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 즉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20세기 동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25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분단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의 일개 첩선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과 동서 냉전을 거치면서 사보오열한 유럽 국가들은 냉전 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연합 체제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경계와 철조망을 없애고 화폐와 관세도 통합하였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군

사적인 적대 행위가 종식되었다.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평화 체제인 셈이다. 유럽의 역사만큼 역사의 상호 작용이 심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냉전 체제가 남아 있는 한반도만이 라도 정전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북한이 핵 개발을 저지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에 노력해 왔다. 그리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개를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교환한 싱가포르 북미 합의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당시 종전 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오랜 분단구조하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 체

제의 시작점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종전 선언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의무, 국제적인 책임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 추진을 다시 제기하였다. 종전 선언은 지난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논의를 한 바 있고 북미 모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선 일정, 북한의 고립적인 대외 전략 등을 감안할 때 북미 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유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75주년이나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행사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가변성을 감안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이 북미 구도로 흐를 경우 우리 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미 구도로 협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2년 가까이 되도록 북미 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 선언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社說

광주 ‘쓰레기 대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광주 광역 위생매립장이 2년 후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역 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곳이다. 당초에는 2026년 7월에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4년 빠른 2022년 6월이면 매립장이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2년 후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원인은 그동안 고휘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 나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로 보내 처리해 오던 쓰레기 일부를 2018년부터는 전량 매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300t이던 매립량이 지난해 말에는 577t으로 늘었다.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데다 집중호우까지 겹친 것도 매립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203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 절차와 민원을 감안하면 2022년 9월께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되고 매립장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지 못한다면 최소 3개월 동안은 매일 수백t의 쓰레기가 노면이 쌓이는 ‘대란’이 현실화된다. 따라서 우선은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오늘로 만기가 되는 기본합의서 효력상시 기한을 앞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손실 보전 방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남은 2개월 동안 해법을 찾았다면 광주 쓰레기 문제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 불법 주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차 불법 주차가 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악습관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 들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로 적발한 화물차량은 벌써 2125대에 달한다. 밤샘 불법 주차 화물차는 지난해(2564대)와 그 전 해(2054대)에도 2천대를 넘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고질적인 상습 불법 주차자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현재까지 밤샘 불법 주차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광산구(1782대)다. 북구에도 15곳의 ‘상습 밤샘 불법 주차장’ 지역이 있고 서·동·남구에도 밤샘 불법 주차자로 악명 높은 장소가 각각 6곳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운송 물량이 급감해 밤샘 주차 차량이 더 많아졌다는 게 현장 단속 요원들의 전언이다.

자치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계도 위주로 이뤄지면서 과징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계

다가 올해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주들의 사정을 고려해 자치단체들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화물차 불법 주차는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데 있다.

광주의 등록 화물차는 4267대(2019년 기준)인데, 전직산단과 평동산단에 각각 조성된 공영 차고지의 주차 규모는 16%인 688면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한 것이다. 현행법상 영입용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에는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화물차량 소유주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허위로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 도심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물차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종교칼럼

신(新) 개미와 베짖이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베짖이 서점에 ‘베짖이와 개미’ 이라는서가 나왔다. 어느 추운 겨울, 별로 할 일이 없던 베짖이가 ‘베짖이와 개미’라는 책을 서점에서 재미있게 읽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책에는 베짖이들이 여름에는 신나게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되면 열심히 불구하고 양식을 얻어 먹는 게으름뱅이라고 써 있었다. 베짖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여 한겨울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제목은 “베짖이가 정말 게으른가?”였다. 외장인 베베가 말했다. “여러분들도 이 ‘베짖이와 개미’ 책을 읽어 보셨겠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

다. 우리가 열심히 노래를 했기 때문에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던 청징이도 거들었다. “웁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노래를 부르지 맙시다” “동의합니다” 화가 난 베짖이들은 너도나도 소리쳤다.

짖짖이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여태까지 베짖이의 노랫소리에 맞추어 일하던 개미들은 베짖이의 노랫소리가 안 들리자 일할 맛이 안 났다. “베짖이의 노랫소리가 안 들리네?” “아, 힘들어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 이렇게 거의 모든 개미들은 일하는 동마는 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놀기만 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겨울이 왔다. 흰 눈이 펄펄 내리자 개미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왜냐하면 개미네 집에서는 여름에 놀기만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 마침내 개미들이 딱딱 쓰러지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여왕개미 ‘왕미’가 베짖이들을 찾아갔다. 내년 여름에는 꼭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러 가보니 베짖이들

도 제 정신이 아니었다. 여름에 노래를 안 불러 머리가 아파 죽는 베짖이들이 수도룩했다. 이 중엔 ‘노래를 부르지 말자’는 의견을 낸 짖짖이와 청징이도 포함되었다.

결국 살아남은 개미와 베짖이들이 의논을 했다. 내년 여름에 베짖이들은 개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개미들은 그 대가로 겨울에 베짖이들이 먹을 양식을 나눠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제 두 집안은 다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은 김선규라는 어린이가 쓴 창작 동화다. 이 동화를 읽고 그 발상(發想)의 전환에 깜짝 놀랐다. 그동안 어릴 때 읽었던 ‘개미와 베짖이’라는 동화의 영향으로 개미는 언제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반면 베짖이는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규의 동화를 통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통제권에 들어올 듯 말 듯한 코로나19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추석에 차례를 지내거나 고향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차례를 지내거나 조상에 성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고정된 사고의 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유연한 사고는 바로 나만 옳고 너희는 틀리다가 아니다. 남녀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 특정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신념을 어느 때는 남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이 현 시대에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하늘과 바람, 그리고 공기마저도 깨끗한 이 시기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다는 생각보다 배려하고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기 고

광주 미디어아트 놀이터 프로젝트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몇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올해는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았고 앞으로도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광주시민은 힘겹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종사자들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각종 전시와 공연, 축제 등은 취소되었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그들은 생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예향’이라 불리며 수많은 예술인이 활동해 왔다. 문화예술계의 소비 지수보다 생산 지수가 유난히 높아 구조적으로 문화예술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문화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문화 정책이 펼쳐지도록 열린 마음으로 틈틈이 예술인들을 만나 뵙고 의논을 드리지만 올해의 상황에서는 더욱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광주시의 문화 정책 기조는 다양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 미디어 아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광주의 미래 정책은 인공 지능, 실감 콘텐츠 등 첨단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에 있으며 이 모두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미디어 아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는 그동안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 ‘혁신과 변화’를 도입한 ‘미디어 아트 놀이터 프로젝트’ 축제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연계하고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23개국이 참여하고 지역의 20여 개 미술 문화 공간도 동참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미디어 놀이터와 퍼레이드도 마련하고 광장에서는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어우러지는 축제형 공연도 아산하게 준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아트의 빛을 통해 빛고를 광주를 진정한 문화관광형 체류 도시로 선도하는 희망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제의 공연과 퍼레이드는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시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하나 이 역시 최대한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행사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광주 미디어 아트 놀이터 프로젝트’는 ‘빛과 공존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협력형 문화사업이다. 광주 지역의 공립 미술관 8곳과 대안공간 7곳에서 함께하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6건의 문화 행사와 연계 추진한다. 또한 23개국 작가들의 참여로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이다.

국내외 13팀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작품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본전시, 옛 전남도청 정면부에 5·18정신과 광주의 빛을 담아낸 특별전, 유네스코 13개국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전이 광주의 밤을 문화예술의 빛으로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공사립 미술관 그리고 대안 공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미디어 아트 투어전을 통해 광주의 작가들과 아시아 10개국 초청 작가들의 협업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미디어 아트 공모전을 통해 신진 작가들과 대학생들이 실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충분히 숙고하여 본전시와 국제 교류전은 모두 야외에서 열리며, 그 외 미디어 아트 투어전 등은 실내외에서 진행하지만 단계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일부 제한이나 전면 온라인 전시로 대체될 것이다. 이처럼 힘겨운 시기에 ‘2020 광주 미디어 아트 놀이터 프로젝트’가 시민들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께 마음 따뜻한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인 ‘빛과 공존의 미학’처럼 어려운 시기에 광주 공동체가 한줄기 빛이 되고 함께하는 따뜻한으로 가득할 기원한다.

無 等 鼓

“누군가 나를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하면 당혹스럽다. 하지만 축구 분야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팀을 맡고 있는 조세 무리뉴 감독의 말이다. 스스로가 ‘스페셜 원’(Special One)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포르투갈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아버지를 따라 축구를 시작한 무리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동하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자신이 일류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클럽 팀의 통역관으로 시작해 코치로 영역을 넓힌 다음 감독이 됐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작은 클럽 FC포르투를 이끌고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후 잉글랜드 첼시, 이탈리아 인터밀란,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등 빅 클럽에서 20년 간 25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무리뉴는 통역 출신답게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도발적이고 화려한 입담으로 화제를 뿌린다. 또한 언제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지금 토트넘에서

는 손흥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토트넘 감독으로서의 무리뉴에 대한 한국 팬들의 호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손흥민에게 수비 역할을 강조해 “공격수를 수비형 원어로 쓰는 거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일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네 골을 몰아쳐 팀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승리를 이끈 상황에서도 “케인이 4골 1도움에 은퇴했다. 자신이 일류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클럽 팀의 통역관으로 시작해 코치로 영역을 넓힌 다음 감독이 됐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작은 클럽 FC포르투를 이끌고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후 잉글랜드 첼시, 이탈리아 인터밀란,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등 빅 클럽에서 20년 간 25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무리뉴는 통역 출신답게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도발적이고 화려한 입담으로 화제를 뿌린다. 또한 언제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지금 토트넘에서

스페셜 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지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체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무 무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